

우선 저는 양평이라는 곳의 특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양평은 도시이기도 하고 시골이기도 하며, 서울 사람들에게는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서울사람들이 먹는 물 땀에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개발에 제한이 있고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소도시로서 그다지 개성있는 도시로 부각되지는 않지만 서울에서 가까워 많은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시가 아니라 그 주변의 산들과 강을 구경하고 강가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간혹 미술관구경을 하기도 하지요.

저는 이 세가지의 특성을 잘 살리는 프로젝트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 농촌, 관광

정원은 도시 주택의 작은 마당이나 아파트의 작은 베란다, 화분이 될 수 있고, 농가 마당의 텃밭이 될 수도 있고, 잘 가꾸진 이국적 정원이나, 야생화정원등-전문적인 정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정원들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주민참여의 정원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한곳에 장소를 정해두고 만드는 것이 아닌 모든 주민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하고 각자가 원하는 곳에 정원을 꾸미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지구입양프로젝트 처럼, 도시의 구멍이 빈 땅이나 골목구석의 빈 땅, 그리고 발사이

의 버려진 공간등등 **양평이라는 지역 전체**-도시와 시골, 길가등등을 장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물론 사용허가등은 구청에서 도와주어야 할 사항이고..

독일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깨끗함과 함께 창문마다 늘어진 아름다운 꽃들을 보셨을 겁니다. 히틀러가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모든 창문 틀위에 화초를 가꾸게 했다는 데서 시작했다는 창가의 꽃가꾸기는 독일 어느 도시를 가던 참 아름다운 볼거리 중의 하나죠.

물론 정원의 경우도 무척 정성을 들여 가꿉니다.

참고로 독일의 공동주택에서는 세탁물을 밖에서 보이도록 널지 못합니다. 보기 싫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작은 꾸미기가 도시를, 생활공간을 아름답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댁에 가면 할아버지께서 가꾸시는 작지만 예쁜 정원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가면 백일홍, 과꽃들에 가끔 쭉부쟁이까지 마당에 옮겨심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있었지요. 그 곳의 식물들은 각각의 정원마다 다른 표정과 향기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장점은

-주민들이 직접 예술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예술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고

-그 즐거움과 성과도 직접 누리며,

-더 나아가서 지역의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높여

관광객들이 음식점과 자연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모든 곳을 흥미있게 돌아 볼 수 있게 하며, 또 오고 싶은 곳으로 기억에 남게하여

-전체적인 관광수입도 증가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작가들의 역할은 이러한 각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좁은 조형물을 제작하는 방법-예를 들면 제프쿤스의 강아지같은 작품으로 전체 행사의 상징물이 될 수도 있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지요.-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 외 자신의 작품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의 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참여도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장소를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정원용 화훼에 관한 원예전문지식도 제공해야 할뿐더러 실제로 씨앗과 싹,필요한 재료들을 나눠주는 행사도 열고,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 어떤 곳의

정원에 어떤 꽃이 만개했다는 등의 홍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성취욕을 이끄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일정기간(일년 정도)를 두고 관람객들의 인기투표를 해서 최고 인기 정원을 선정하여 상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 이외에 외지인들도 주말정원처럼 한 곳에 정원을 조성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하면 더 많은 홍보효과가 있을 것입니다.